



“농수축산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문이 되겠다”

농수축산신문 **전정희** 대표

"농수축산인의 대변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이름과 펜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농수축산신문 전정희 대표의 일성이다. 1차산업계의 리더로서 2000ING(2000 Information, Nature, Globalization)라는 가치를 내걸고 정보화, 청정화, 국제화를 주도하는 최고의 권위자로 재도약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전 대표를 만나 축산전반에 대한 의견을 들어 보았다.



▶ 농수축산신문 창간취지와 방향

1981년 5월 25일 창간 당시는 농업관련 전문지는 거의 전무한 시대로 신고제가 아닌 허가의 상황에서 어렵게 주간 농수산신보로 인가를 받았었다. 당시 농업은 경종위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축(畜)이라는 분야가 빠져있었다. 이후 축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1983년 3월 농수축산신보로 제호를 변경하게 되었다. 농수축산신문은 농축산인의 공기 역할 즉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불특정 다수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한군데로 모아 효과적으로 전달함과 동시에 산업 발전을 위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정책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신문의 창간취지는 농축산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기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이다.

▶ 언론이 축산에 미치는 역할과 영향

축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산업이



2003년 농수축산신문이 주관한 우수농축산물대전 행사. 우수농축산물대전은 산지조직과 유통업체 바이어 및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비즈니스 박람회로 매년 개최됐으며 최근에는 SAFE로 이름을 바꾸어 농민신문과 함께 개최하고 있다.

발전하는 과정에서 농축산 전문 언론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며 산업에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즉 전문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함으로써 “농수축산인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신문이 되기 위하여 오늘도 노력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은 단순한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 축산업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문제제기, 나아가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 언론이 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 신문을 운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1990년대 후반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본사도 예외 없이 경영상태가 악화되면서 내부적인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같이 생활하던 가족이 본의 아니게 떠나야 하는 현실에서 가슴 아픔을 느꼈다.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전국에 있는 우수 농수축산물 서울로 모아 바이어에게 소개하는 우수농축산물 상품설명회를 개최한 점으로 업계의 많은 분이 관심을 가졌고 반응도 뜨거웠다. 농축산물도 체계화된 조직을 통해 생산, 고



지난해 11월 개최된 HACCP기준원 개원식에 참석한 전정희 대표.

급화돼야 우리 농축산인이 생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감회가 남다르다. 우리 농축산물의 고품질, 고급화, 브랜드화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에 도화선이 되었다고 자평하고 있으며 이것이 제일 보람된 기억이다.

▶ 타 신문과 다른 취재방향이 있다면

농축산업은 어떻게 잘 생산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판매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국내 농축산물은 여러 가지 여건상 생산비를 낮추기 어렵다. 이 가운데 산업의 활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데에서 찾아야 하며 이는 농축산물의 유통, 즉 마케팅을 강화하는 데에 있다. 본사는 5~6년 전부터 유통이 산업을 좌지우지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유통부문을 강화, 마케팅 관련 정보를 비중 있게 편집하여 보도해 왔으며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이의 일환으로 자매지 ‘더 바이어(the Buyer)’라는 식품유통전문지를 창간하여 발행하고 있다.

예전에 농업관련 회의에서 농축산인이 고급차를 타고 다니면 안 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었



2007년 신년특집으로 개최된 축산단체 좌담회 전경. 2006년 한 해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1년동안 축산업계의 예상 이슈와 해결방법을 진단하는 자리로 전정희 대표를 비롯 농협 축산경제와 한우협회, 낙농육우협회, 양돈협회, 양계협회, 오리협회 대표가 참석했다.

다. 당시 그것은 잘못된 선입견이라고 반박했다. 정부, 언론 그리고 관련종사자들이 해야 할 일은 농축산인이 명분을 갖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여건을 조성해 우리 농축산인도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한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본사는 농축산인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산업에 종사할 수 있고, 수익률도 높여 농축산업이 재미있고 보람찬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힘이 되고자 한다.

▶ 종축개량의 필요성과 가축개량평가 행사

예전에는 농가들이 종축개량이 무엇인지, 필요 한지에 대하여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없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농가들이 개량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이제는 생산성을 어디까지 높여야 하는지, 질적인 개량방향은 어떻게 설정할지 등에 대한 가축 개량목표를 새로운 시각으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종축개량협회도 시대에 맞게 목표를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난해 한국홀스타인품평회를 보면서 우리나라

의 대회내용도 국제적인 수준이라는 점을 느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여주는 행사보다 농가와 소비자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축제의 장으로 전환됐으면 한다.

▶ 한국축산의 미래는

결론적으로 한국 축산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한다. 수입개방, 한·미FTA 타결, 한·중 및 한·EU FTA 추진 등으로 한층 어려워질 것이라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축산은 농업을 이끌어 가는 업종으로 발전할 것이며, 구조조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어 규모화와 전업화가 된다면 충분히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내에서 필요로 하는 축산물을 100%를 자급할 수는 없겠지만 나라가 존재하는 한 일정비율의 자급률은 유지해야만 하며 그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 축산의 실질적인 당면 과제는 수입개방에 따른 어려움 보다 환경적인 문제일 수 있다. 환경문제는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제는 이 부분에 큰 비중을 두고 축산업을 영위할 시기가 된 것이다.

경종농업은 축산업에 비해 구조조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자유무역협정시대를 맞이하여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축산업은 경종농업보다 3~4단계 앞서가고 있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우리 축산인들이 열정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진다면 산업 경쟁력 제고는 물론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드는 열쇠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 축산인 모두가 즐거운 삶을 영위하며 축산업에 희망이 넘치기를 바라면서 전정희 사장은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취재: 윤현상 부장